

'쌀, 꽃게, 곱창김까지...' 진도 농수산물 호주 수출길

시드니·혼스비 한인 마트 납품 교민·현지인 입맛 사로잡아 "적극적으로 해외시장 발굴·개척 수출 확대 위해 지원할 것"

진도의 농수산물이 호주 수출길에 오르면서 지역 농수산업 활성화와 농어가 소득증대를 이끌고 있다.

5일 진도군에 따르면 이달 초 진도 꽃게, 곱창김, 젓갈류, 건해산물과 진도쌀 등 5t(6만 달러) 가량의 농수산물이 호주 시드니와 혼스비로 첫 수출길에 올랐다.

수출된 진도 농수산물은 호주 한인마트 등에 납품돼 교민들과 현지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이번 수출을 통해 진도군의 농수특산물 품목과 물량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민선 8기 김희수 진도군수 공약사항의 일환으로 우수 농수산물 통합 관리와 마케팅을 통한 유통체계 강화를 위해 전담 부서인 농수산유통사업단을 지난 1월 신설, 첫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진도군청 청사 앞에서 열린 선적식에는 김희수 진도군수, 장영우 진도군의회회장, 리차드 김 ㈜마이홈푸드 대표, 김기영 진도군수협장, 강성민 서진도농협장 등이 참석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최근 K-푸드의 전 세계 확산과 맞물려 진도군에서 생산된 우수 농수산물과 농식품에 대한 해외 인지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을 발굴하고 해외시장 개척 등 수

출 확대를 위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기자

장흥군 "사회복지 업무 담당자 역량 한층 높였다"

장흥군은 지난 1일부터 이틀간 사회복지정보시스템(행복이음) 사용자 교육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주관으로 추진했다.

이번 교육은 읍면 주민센터 및 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4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새롭게 도입된 차세대 사회복지정보시스템(행복이음)의 변화된 내용을 숙지하고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진행했다.

초기상담, 신청정보등록 등의 상담·신청업무와 수급자 변동집계관리, 급여생성 및 지급과 관련한 조사·결정 업무의 전산입력 절차·시스템 처리·실무실습 등을 통해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

교육 시작에 앞서, 다년간 현장에서 공식생활을 해온 전담 팀장과 직원이 직접 강사로 나서 빠르게 변화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분야별 주요 개정 사항과 ▲가족관계해체 관련 제출서류안내 ▲정부양곡관리사업 ▲행복이음 개인정보 오남용 사례 전달 등 자체 제작한 교육교재를 활용하여 업무 연속성을 높이도록 했다.

장흥=김도영기자

해남군, 방치자전거 재활용 공공자전거로 대어해준다

해남군이 전라남도 주관 공유자전거 확충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사업으로 실시된 이번 공모는 무단 방치된 자전거와 불필요한 자전거를 기증받아 재활용한 후 대여소에서 공공자전거로 대어해 주게 된다.

우선 100대의 자전거를 수거 후 시범 운영할 계획으로, 총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대여소 설치와 방치 자전거 수리, 자전거 대여 등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대어사업은 올 10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군은 자전거 대여시 안전용품을 구비하고, 수리 기술자 등 인력을 채용해 대여소를 운영 하는 한편 군민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 자전거 교육도 실시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도보 환경에 불편을 끼치고 있는 무단방치 자전거를 재활용해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제공함으로써 주민 편의확보와 환경 개선의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 단위의 경우 열악한 도로 여건과 법적 뒷받침 한계로 자전거 관련 사업의 적극적인 시행이 어려웠으나, 이번 공모를 계기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해남형 ESG의 확산을 통한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어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세계적 포토저널리스트 강형원 작가, 강진 찾는다

내일 강진미래아카데미 특강...풀리처상 수상 등 이력 화려



강진미래아카데미 시즌1 두 번째 강좌에 포토저널리스트 강형원 씨가 나설 예정이다.

전남 강진군은 오는 8일 목요일 오후 7시 강진아트홀 소공연장에서 '강진미래아카데미' 두 번째 강의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강진군에 따르면 이번 강연에는 최고의 포토저널리스트인 강형원 씨가 '우리 문화 유산의 고대성'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진미래아카데미' 교육은 수준 높은 명품 강연을 통해 양질의 정보를 공유하고 삶의 질 향상과 품격 높은 지역으로 발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강형원 씨는 국내에서 탁월한 사진 작품과 독특한 시각으로 유명세를 떨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높은 수준의 기술과 예술적 감성을 결합시켜 사진을 통해 이야기와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또한, 강형원 씨는 언론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풀리처상'을 두 번이나 수상한 뛰어난 스토리텔러이자, 디지털 콘텐츠 개척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최전선의 칼럼니스트이자 포토저널리스트로서 워싱턴, 올림픽, 북한, 미국 역사에서 가장 파괴적인 사건인 L.A. 4-29 폭동과 9-11 참사 등을 취재하며 30여 년 이상의 미 주류 언론사의 현역 기자 에디터로 왕성한 활동을 펼친 언론인이다.

강의에서 참가자들은 실전 사례와 예시를 통해 직접적인 학습 경험을 할 수 있으며 강형원 씨는 자신의 작품들을 공유하고 참가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며 개인적인 조언과 피드백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5월 30일 강진군과 전라남도 강진교육지원청, 강진읍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강진미래아카데미 시즌1'의 첫 번째 강의가 탁월한 작가의 열광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강진 미래아카데미 시즌1의 세 번째 강의는 '파르티에스의 해설이 있는 클래식, 음악사의 하이라이트'라는 내용으로 6월 15일 목요일 오후 7시에 강진아트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강진=김영일기자



전남 완도군이 한국 수산식품 불모지인 라오스 시장을 집중 공략한다.

2일 완도군에 따르면 이날부터 4일까지 라오스 수도인 비엔티안에서 (사)남도농수산물

완도 수산물 '불모지' 라오스 시장 공략

라오스 비엔티안 수산물 판촉전...5개 업체 다양한 수산식품 선보여

품수출협회 소속 수출 업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완도 수산물 판촉 행사를 가졌다.

이번 판촉전은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다. 비엔티안 소재 폭죽 메가마트에서 진행했다.

판촉전에는 완도다양어조합법인과 (유)완도세계수산물, (주)해정정, 다시마전복수산물, 해성인태너셔널 등 5개 업체가 참가해 해조국수, 전복 차우더, 광어죽, 전복 절편 등 다양한 수산식품을 선보였다.

또 완도 수산물을 이용한 요리방법을 소개하고 시식회도 연다.

라오스의 대형 유통체인에 완도 수산물이 입점하게 된 것은 지난해 11월 해외시장개척

단 활동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 2월 열린 첫 번째 판촉 행사에서도 전복 차우더와 해조국수, 전복 절편, 해초 비빔밥, 김 등 완도산 수산식품이 라오스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완도군 관계자는 "7월에 추가로 판촉 행사를 진행해 그동안 불모지였던 라오스에서 수산물 소비 트렌드를 주도해 나갈 방침"이라며 "청정바다에서 생산되는 완도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려 더 많은 해외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